

◇식도천공의 임상적 평가

전순호, 정태열, 송동섭, 강정호, 정원상, 이철범, 함시영, 지행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식도천공은 진단이 되었을때 수술적 치료와 보조적인 치료 방향의 설정 가끔 어려울때가 있어서 이에 연구하였다.

방법 : 1986년 7월부터 1998년 8월 사이에 한양대학 병원 흉부외과에서 식도천공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 14명에 대하여 후향성 임상 재검토 하였다.

결과 : 남녀 환자의 비율은 12:2 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6세였다. 의인성 천공 환자는 6명[42.9%]이고, 부식성 천공 환자는 2명[14.3%], 외상성 천공환자는 2명[14.3%], 이물질에 의한 환자는 1명[7.1%], 식도암으로 인한 환자는 1명[7.1%]이었다. 환자의 5례[41.7%]는 하부 1/3 부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합병증은 중격동염이 8례로 가장많았다. 치료선택에 있어 3례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중 2명이 사망하였다[사망율67%]. 수술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서 3례는 일차 봉합술, 1례는 일차 봉합과 위루조성술을, 개방성 배액술은 3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고 2명의 환자는 위루조성술만, 1례는 식도공장문합술과 공장공장문합술을, 1명의 환자는 위루조성술과 절개, 배액을 하였다. 수술환자 11명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율은 9.1%였다.

결론 : 식도천공은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망율이 높다. 그러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하며 동시에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 확실한 결론은 어렵지만, 식도천공환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나으리라 생각한다.

책임저자:강정호(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표자:전순호(한양대학교 의과대학)